

노동당의 복고주의 실험의 실패 -코비니즘(Corbysm)과 좌파 포퓰리즘 논쟁-*

김 용 민

단독 / 건국대학교 조교수

[국문초록]

2019년 12월 12일 이례적으로 실시된 영국의 조기 총선거에서 노동당은 역사적인 참패를 당하였고 이는 너무나도 과격한 좌파 포퓰리즘 정책에 기반한 코빈의 코비니즘 때문이라는 평가가 많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정확히 코비니즘이 목표로 하는 정책이 무엇이고 과연 그것이 실제로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규정될 수 있는지를 고찰한다. 이어서 다양한 좌파 포퓰리즘과 우파 포퓰리즘이라고 분류되는 포퓰리즘 정당, 정치인들의 정책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실제 유권자 획득 수단으로서의 포퓰리즘을 고찰해 본다. 이는 현재 포퓰리즘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개념이 국내와 해외가 다르며 유럽과 영미권에서도 다른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여러 포퓰리즘 정당과 정치인들을 비교함으로써 언론이나 만들어진 이미지로서의 포퓰리즘이 아닌 실제 정치적지 획득 방법론으로서의 포퓰리즘을 규명하려는데 목적을 둔다. 또한 이를 통하여 코비니즘의 실패가 포퓰리즘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존재하는지 고찰하는데도 이 논문의 연구목적이 있다. 마지막으로 이를 통하여 앞으로의 영국 노동당의 방향성과 앞으로의 영국 정당정치 전개를 예측하며 국내에 아직 논의가 활성화 되지 않는 좌파 포퓰리즘 논의의 기초자료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 이 논문은 건국대학교 KU연구전임 프로그램에 의해서 수행된 과제임

주제어 : 영국 노동당, 제레미 코빈, 코비니즘, 좌파 포퓰리즘, 복고주의

1. 서론

2019년 12월 12일 이례적으로 겨울에 실시된 영국의 조기 총선거에서 노동당은 역사적 참패를 당하였다. 이에 책임을 지고 노동당 당수였던 제레미 코빈(Jeremy Corbyn)은 당권을 넘겨주게 되었는데 처음 당수로 등장할 때부터 의외였던 코빈은 노동당 당수로 있던 기간 소위 코비니즘(Corbynism)이라고 불리는, 블레어정권부터 이어온 노동당의 제3의 길 노선을 부정하고 전통적인 노동당으로의 회귀를 주장하였고 이로 인하여 코빈은 급진적인 좌파적 정책을 내세워 당권을 획득하고 노동당을 이끈 것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그러한 그의 등장은 1945년 2차대전 종전 이후의 최악의 성적이라는 참패를 기록하며 막을 내리게 되는데 이에 대하여 코빈이 추진한 정책들이 실은 좌파 포퓰리즘(Left populism)이었다는 비판이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논쟁에 대해 살펴보고 과연 실제로 코빈의 정책이 좌파 포퓰리즘인지 실제로 좌파 포퓰리즘이라는 것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 고찰하고 코빈 이후의 노동당이 어떻게 이러한 역사적 패배를 극복하려 하는지에 대해 논해본다. 이 논문의 연구목적은 현재 무분별하게 인용되고 있는 좌파 포퓰리즘이라는 개념의 정확한 규명과 이러한 흐름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극우정당의 대두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고 결론적으로 영국 정당정치가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할 지를 예측해보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이번 조기 총선거에서 노동당은 1935년 이후 쪽 지켜오던 전통적인 지역구에서 조차 의석을 상실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러한 선거패배와 코비니즘이 관련성에 대해서도 고찰한다. 이를 통하여 유럽과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좌파 포퓰리즘에 대한 분석도 함께 진행한다.

이어지는 논문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이어지는 2장에서는 국내외의 선행연구 대한 정리와 고찰과 함께 좌파 포퓰리즘이라는 용어의 기원을 살펴보고 3장에

서는 코빈의 노동당 당수로서의 기간 중에 그가 펼친 노동당의 노선변경과 코비니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이어지는 4장에서는 영국에서의 코비니즘에 더하여 영국 이외의 예를 들면 미국의 샌더스와 같이 다른 국가들의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불리는 현상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해본다. 그리고 이어지는 5장에서는 결론을 대신하여 앞으로의 영국 정치에 있어서의 노동당의 방향성과 앞으로의 영국 정당정치 전개를 예측하여 보려한다. 이를 통하여 국내에 아직 논의가 활성화 되지 않는 좌파 포퓰리즘(Left Populism) 논의의 단초가 될 것을 기대한다.

2. 국내외 선행연구 정리 및 분석

우선 국내외의 선행연구 현황을 살펴보면 유럽의 포퓰리즘에 대한 논의는 많이 진행되어 왔다. 유럽의회에서의 극우 포퓰리즘 정당의 약진을 연구한 논문이나(배병인 2017) 이탈리아 총선과 포퓰리즘 정부를 연구한 논문(김시홍 2018), 기성정당의 카르텔화와 포퓰리즘 정당의 성장을 고찰한 논문(배병인 2019) 2019년 유럽의회선거에서의 극우 포퓰리즘의 부상에 관한 논문(오창룡 2019), 포퓰리즘으로 인한 유럽통합 위기를 살펴본 논문(홍지영 2019)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의외로 좌파 포퓰리즘을 연결하는 측면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드문 편이다. 전문 연구자가 아닌 노동운동을 하는 노동당 정책위원회 의장으로서의 스페인 포데모스의 좌파 포퓰리즘의 가능성과 한계를 살펴본 기고문(금민 2015), 좌파 포퓰리즘이라는 용어에 대해 처음 단초를 제공한 상탈 무페의 학술서에 대한 서평(정태석 2019), 그리고 포데모스와 이탈리아의 오성운동을 남부 유럽의 테크노 포퓰리스트 정당으로 규정한 연구(임유진 2020) 정도가 눈에 띈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국내에서 포퓰리즘과 극우정당에 대한 연구와 관심은 높으나 아직 좌파와 포퓰리즘이라는 용어를 결부시키는데에 합의가 되어 있지 않으며 진태원은 이를 대신할 개념으로 을(乙)의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진태원 2019)

그러면 해외의 연구 상황은 어떠한가? 일단 좌파 포퓰리즘이라는 용어를 일약 화두로 만든 것은 역시 샤탈 무페(Chantal Mouffe)의 저술 『좌파 포퓰리즘을 위하여』(*For a left populism*) (2018)이다. 이 책에서 무페는 포퓰리즘에서 새로운 좌파 헤게모니 구성을 위한 정치전략을 제시하며 좌파의 혁신을 촉구했다. 무페는 이 책에서 사회민주주의 계열의 정당들의 가장 큰 약점은 정체성과 전략을 과감히 수정하는 헤게모니 전략을 취하지 못하는 것인데 무페는 이러한 헤게모니 전략을 채택하여 성공한 사례로 코빈의 영국 노동당을 들으나 이는 2019 조기 총선거에서 노동당이 참패하여 성공 사례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무페의 이러한 문제제기가 해외 연구자들의 좌파 포퓰리즘 연구에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미국의 버니 샌더스, 영국의 제레미 코빈, 스페인의 포데모스 등의 일련의 움직임들에 연구할 필요성은 충분하며 이에 많은 연구들이 존재한다. 좌파 포퓰리즘과 플랫폼 자본주의를 연결하여 SNS 시대의 좌파 포퓰리즘에 대해 고찰한 연구(Nick Dyer-Witthford 2020) 등도 등장하였다. 그러나 본 논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구들은 역시 코빈의 노동당 소위 코비니즘에 대한 연구들이다. 코빈이 처음 당권을 획득한 시점에서부터 2017년 조기 총선거에서 보수당의 치매세 실언 등을 바탕으로 영국 정치에서 부상한 이후 이번 2019 조기 총선의 참패에 이르기까지 코빈의 노동당의 부침에 따라 다양한 연구가 생성되었다. 코빈의 노동당 내부 현상으로서의 포퓰리즘을 고찰한 연구(Jake Watts and Tim Bale 2020)는 물론 영국의 가장 대표적인 정치학 학술지 중 하나인 『영국 정치학』 *British Politics*는 가장 최신호에서 코비니즘과 노동당에 관한 특집호를 구성하여 다각적으로 심층 분석하였다. 이 분석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코비니즘과 코빈이 당수로 선출되어 물러나기까지의 노동당을 고찰하고 있는데 먼저 코비니즘과 노동당의 압력단체인 블루 레이버(Blue Labour)와의 관계를 고찰한 논문(Bolton and Pitts 2020), 2017년 코빈이 어떻게 노동당의 복고노선으로 회귀시켰는가를 고찰한 논문(Byrne 2019), 코빈 이후의 노동당의 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본 논문(Manwaring and Smith 2020), 코비니즘을 순수하지만 환상에 빠졌있는 비현실적인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는 논문(Maiguascha and Dean 2020) 등이 그것이다. 종합적으로 해외의 연구들을 고찰해보

면 처음 등장에 있어서는 코비니즘의 복고주의 실험에 중립적이거나 호의적이었고 2017년 조기총선거에서 보수당의 실수가 있었다고는 하나 일정부분 성과를 거둔 것을 성공 사례로 판단하기도 하였으나 이번 2019년 선거에서의 참패에 의하여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노출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이어지는 3장에서는 코빈이 전면에 등장하게 된 2015 정기 총선거에서부터 퇴장하게 된 2019년 조기 총선거에 이르기 까지 3번의 중요한 선거결과의 결과 분석을 통하여 코빈의 노동당 당수로서의 그가 펼친 노동당의 노선변경과 코비니즘에 대해 고찰해보려 한다.

3. 코빈에 의한 노동당 복고주의 실험 -코비니즘(Corbynism)이란 무엇인가?

코비니즘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제레미 코빈은 어떻게 영국 정당 정치의 전면에 등장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5년 총선거에서 노동당은 예상외의 커다란 패배를 당하였다. 2010년 고든 브라운 총리 시절 경제 위기로 인한 패배보다 더 치명적인 패배이며 1987년 이후 최악의 결과였다. 당수였던 에드 밀리번드(Ed Miliband)의 인기가 그리 나쁘지 않았던 것, 그리고 직전 2010년 총선결과가 노동당에게 매우 좋지 않았던 것을 감안하면 이보다 못한 결과는 예상치 못한 패배였다.(김용민, 홍재우 216) 이는 이어지는 2016년 행해진 예상외의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브렉시트가 결정되는 유럽회의주의가 영국 국내에 강하게 존재함을 알린 첫 전국 선거이자 노동당은 전통적인 지지기반이던 스코틀랜드 지역을 내부민족주의를 내세운 스코틀랜드 민족당(SNP)에 대부분 내주게 되는 첫 번째 선거였다. 스코틀랜드 선거 결과는 전체 선거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노동당은 2010년에 비해 26석을 잃었는데 스코틀랜드를 제외한다면 14석을 더 획득한 선거였기 때문이다.(김용민, 홍재우 219)

이러한 선거의 패배를 통해 노동당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는데 블레어와 브라운의 제3의 길 노선을 비판하였던 밀리번드는 상대적으로 좌파적 정책을 추가하여 노

동당의 선명성을 강화하려 하였지만 실패하였고 이에 노동당 내부에서 더 좌파적인 전통의 노동당으로 회귀해야 하는지 정권을 효과적으로 획득하였던 블레어-브라운의 중도적인 노선을 다시 채택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었고 이 결과 사전에 전혀 예측되지 않았던 제레미 코빈이 당수에 선출되면서 노동당은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코빈은 사회주의의 21세기적 해석을 주장하며 노동당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겠다고 주장하며 2015년 당권을 장악하였는데 노동당이 당수 선출을 진행하려는 시점에도 누구도 제레미 코빈이 당수로 선출되리라는 예상은 하지 못하였다. 비록 에드 밀리번드가 당수가 되었을 때 제3의길 노선을 버리고 새로운 정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기는 하였지만 실제로는 제3의 길은 노동당 안에서 유지되고 있었으며 2015년 선거의 패배의 책임을 지고 밀리번드가 사퇴한 이후에도 블레어의 노선을 계승하는 중도좌파(우클릭)의 의원들이 유력한 당수후보로 등장하였다.(김용민 154) 이러한 노동당의 구노동당 노선으로의 원점회귀가 올바른 선택인지는 그 당시부터 여러 논란이 존재하였으나 결국 정당은 선거결과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는 평가를 받으며 코빈의 노동당이 출범하였다.

이후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예상을 뒤엎고 브렉시트가 유럽연합 탈퇴로 결정되고 안정적으로 보였던 캐머런 보수당 정권이 캐머런 총리가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 함으로서 급작스러운 혼란에 빠져들게 되었다. 이런 의외의 결과가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나오게 된 가장 큰 원인은 2013년과는 다르게 유로존의 경제위기 심화와 이민자, 난민 문제가 국제적으로 부각되면서 2015년의 유럽회의주의는 훨씬 더 강한 힘을 지니고 있었고 이는 영국독립당의 유럽의회 제1당 석권과 보수당의 의외의 단독 과반수 집권으로 나타났고 2016년의 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가능성’을 단순히 유럽연합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려는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실현 가능한 현실로 만들었다.(김상수 87) 이는 스코틀랜드 독립투표와는 달리 근소한 차로 보수당이 원하지 않던 결과를 가져왔고 이어지는 길고 긴 브렉시트 협상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져오게 된다.

이어지는 2017년 조기 총선거가 브렉시트를 쟁점으로 치러지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코빈이 당수로써 치른 첫 총선거였던 이 선거에서 노동당은 브렉시트 결과 자체는 국민투표의 결과로 인정하고 대신 보수당과는 다른 접근방식의 유럽연합과의 협의를 주장하였다.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적극적으로 유럽잔류를 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실 유럽연합 탈퇴를 지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코빈에 대한 비판에 대해 이는 사실이 아님을 주장하던 노동당으로서 이 선거에서 보수당이 공약집에서 “잘못된 협상보다 협상을 하지 않고 탈퇴하는 것이 영국을 위한 길(no deal is better than a bad deal for the UK)”(*Conservative Party 2017 Manifesto*) 주장한 것에 대하여 이제까지의 협상을 백지화하고 유럽연합과의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을 유지하는 전통적인 관계의 중시(*Labour Party 2017 Manifesto*)를 주장하였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코빈이 실제로는 브렉시트를 지지한다는 비판에 대해 강한 부정을 하는 효과를 노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2017년 선거에서 선거 실시 이전에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는 평을 받았던 보수당이 과반수 획득에 실패하고 코빈의 노동당이 예상외의 선전을 기록하는데에는 쟁점이 될 것이라는 브렉시트 관련 정책보다는 오히려 복지정책에서의 보수당의 치매세 등의 실언이 결정적이었다. (김용민, 박영득 147) 코빈은 이에 비하여 전통적 진보정책에 기반을 둔 큰 사회복지와 학자금 대출에 고통 받고 있는 대학생과 젊은 사회인 세대에 대한 무상 대학교육을 내세워 복고적 좌파 노동당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코빈의 대중적인 인기는 여전히 낮았지만 앞에서 서술한 무패가 코빈을 좌파 포퓰리즘의 성공 예로 든 것이 바로 이 선거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고 메이 보수당의 과반수가 무너짐으로서 코빈은 유력한 야당 당수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9년 조기 총선거 결과는 다르다. 코빈은 이번 선거에서 보수당의 보리스 존슨이 브렉시트 완수라는 간단명료한 하나의 공약과 메시지의 전달에 집중한 반면 노동당의 복고주의를 더욱 강화시켜 보수당 정권 아래의 빈부격차를 극복할 급진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사회복지 공약들로 선거전을 완주하였으며 브렉시트에 대해서는 영국민에게 가장 좋은 브렉시트 안을 만들 것이라는 추상적인 표현만 피력하였다. (김용민, 정성은 9) 노동당은 급진적인 선거공약들을 들고 나왔는데 그 상세한 내용은

최저임금 인상, 의료복지 체제 개혁, 주요 산업 재국유화 등이었다.(김용민, 정성은 10) 이는 코빈이 일생을 거쳐 주장해온 80년대 대처에 의해 도입된 신자유주의적인 영국 경제에 대한 전면적인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블레어 이전의 구노동당 노선의로의 완전회귀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전통적 노동당 지지지역의 노동자들로부터 과도한 불안감을 느끼게 하여 노동당의 지지로부터 이탈하게 하였다. 한편으로는 노동자 친화적인 복지정책 예산의 대폭적인 확대를 이야기하면서 한편으로는 주요 산업의 재국유화를 이야기하는 코빈의 공약들은 당연히 재원의 확보라는 점에서 다른 정당의 비판을 불러왔으나 이러한 지적에 대해 노동당은 제대로 답변하는데 실패하였다.

브렉시트 탈퇴 과정으로 인한 기나긴 3년간의 혼란을 겪은 영국 국민들에게 이러한 모습은 또 다른 불확실성의 추가로 인식되어 노동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였다. 민영화되어 적자경영을 하고 있는 주요산업을 국유화하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며 이전의 국유화 시점에도 변함없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다는 것을 영국 국민들이 잊고 있지 않기 때문이었다. 여기에 코빈이 당내의 반 유대인 주의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 평이 확대되면서 코빈 자신의 인기는 더욱 떨어지게 되었다. 애초에 당수에 당선될 때부터 소수파였던 코빈은 한 번도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지는 못하는 정치인이었고 이는 그의 총리 적합도 여론조사를 보아도 명백하다. (“Leadership approval opinion polling for the 2019 United Kingdom general election”) 이는 그의 신념인 코비니즘(Corbynism) 때문이었다.

그러면 노동당에게 이러한 역사적인 패배를 가져온 코비니즘이란 정확히 무엇인가?

코비니즘은 블레어-브라운이 이야기한 제3의 길의 노동당 중도노선을 근본적으로 부정하지만 재미있는 공통점이 있다. 블레어와 브라운이 글로벌리즘과 신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한 자본주의를 인정하고 세계가 변화하였으므로 노동당도 변화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중도노선으로 우파에 접근한 정책을 펼쳤다면 코비니즘도 같은 논리로

신자유주의가 이제 종언을 고하고 있으므로 노동당이 국가에 대부분의 권리를 환원시키는 경제정책을 다시 한 번 채택해야한다고 주장한다.(Pitts, Bolton and Thomas 2018 5) 하지만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는 분리될 수 없는 경제적 개념으로 코빈이 주장하는 신자유주의의 종언이 영국 및 서구사회에서는 자본주의를 포기하는 것과 정확히 구별되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이는 코빈이 근원주의적 마르크스주의에 경도되어 자본주의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 보수당을 비롯한 다른 정당의 비판과도 연결된다. 그러나 단순히 코비니즘을 마르크스주의로 코빈을 마르크스주의자로 보는 시선은 옳지 않다. 이에 정확히 코비니즘이 어떠한 영향을 노동당에 주어 그 정책과 정당 활동으로 다다르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코빈은 자신을 사회주의자라 밝히며 오랫동안 반전, 반핵운동을 벌여왔고 극좌라는 평을 얻게 된 이유는 마르크스를 위대한 경제학자라고 했기 때문인데 그 정도로 극단적이 아닌 실제로는 2017년 총선의 코빈이 주도한 공약들은 케인즈 주의자에 가깝다는 평이 주를 이뤘다. (“Labour’s manifesto is more Keynesian than Marxist”)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빈에 대해 극좌 (Hard-Left)라는 평가가 내려진 데는 미디어의 역할이 컸다. 코빈을 지지하는 당원들이 노동당 당원들 중에서 가장 극단적인 좌파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미디어에 계속적으로 주목을 받으며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코빈을 가장 왼쪽에 서있는 유권자의 지지를 받는 정치인으로 자연스럽게 인정하게 되었다.(Maiguascha and Dean 53) 이와 연계하여 코빈을 포퓰리즘 정치인으로 보는 시각도 유사한 출발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보수적인 언론에서 코빈의 정책들을 좌파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보수당도 이를 공격하면서 코비니즘은 2017년 선거공약 시점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케인즈 주의거나 혹은 남유럽 국가들이 실시한 사회주의 정책과 동일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영국 내부에서는 좌파 포퓰리즘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2017년 선거 결과는 보수당의 실연을 감안하여도 비판받기 어려운 성과였음이 분명하다. 노동당이 획득한 40%의 유효표 지지율은 지난 2015년 선거로부터 9.6%나 증가한 결과이며 이는 1945년 이래 노동당 증가율로서

는 최대 규모였기 때문이다. 이는 오랫동안 이어져 오던 (블레어 정권 시절부터) 노동당의 득표율 감소 경향에 제동을 걸은 정치적 사건이자 보수당으로 이탈했던 전통적 지지층이 복귀하였음을 의미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더하여 2008년에 166,000명을 기록했던 노동당 당원 수도 2017년에 554,000명 까지 증가하였다.(Seyd 2)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볼 때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비판을 받으면서도 2017년 조기 총선거를 치러내는 과정에서 코빈은 밀리번드로부터 물려받은 노동당의 위기를 훌륭히 극복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2017년 이후부터 2019년 총선거까지의 기간에 노동당 정책과 코빈의 변화를 살펴보아야 진정한 코비니즘과 영향력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래의 <표-1>은 노동당의 위상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최근 3번의 총선거에서의 획득 의석수와 득표율이다. 이를 보아도 2017년 선거가 코빈에 의한 첫 전국규모 선거이나 이전의 2015년과 비교하여 득표율에서는 최대 증가를 의석수에 있어서도 제1야당으로서 감소세를 막아낸 부분적으로 성공한 선거이다. 2017년 선거는 노동당 뿐 아니라 보수당도 득표율이 상승하고 중도 정당인 자유민주당, 극우정당인 영국독립당(UKIP) 등이 몰락한 선거로서 전통적 영국 웨스트민스터 모델의 양당정치로의 회귀라는 평을 들었으며 노동당은 젊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획득하는데 성공하였다. (“Young voters, class and turnout: how Britain voted in 2017”-Guardian) 여기에 더하여 전통적 노동당 지지층이던 중산층 노동자들의 표를 다시 한 번 획득해내고 인구가 많은 대도시와 대학생들이 많은 대도시에서도 선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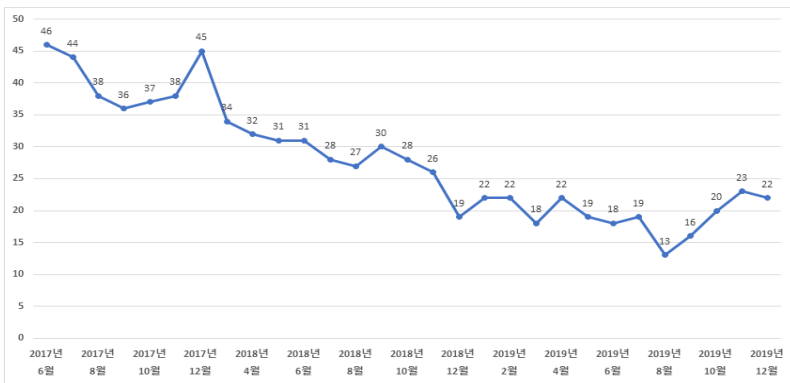
〈표-1〉 영국 노동당의 최근 총선거에서의 획득 의석수와 득표율¹⁾

선거일시	2015년 총선거 (에드 밀리번드)	2017년 조기 총선거 (제레미 코빈)	2019년 조기 총선거 (제레미 코빈)
노동당 의석수	232석	262석 (+30)	202석 (-60)
노동당 득표율	30.4%	40.0% (+9.6)	32.1% (-7.9%)
선거쟁점	유럽회의주의와 스코틀랜드 문제	브렉시트와 치매세 논쟁	브렉시트 협상 완료

이어지는 <표-2>는 여러 여론조사 업체들의 여론조사를 종합한 2017-2019년 동안의 제레미 코빈에 대한 호감도 조사의 변화를 나타낸 표이다.

〈표- 2〉 제레미 코빈 지지율 현황

(단위: %)



※ 지지율 조사 기간 : 2017년 6월 ~ 2019년 12월

※ 자료 출처 : 기본적으로 YouGov 데이터를 활용(2017년 6,8,9,11,12월, 2018년 3,4,5,7,9,12월, 2019년 1,3,5,8,9,11,12월)하였으며, 조사누락 월에 대하여는 Deltapoll 및 Opinium 등의 데이터를 활용하였음)

<표-2>의 지지율 추이를 보면 2017년 선거 이후 2018년 6월까지 30% 이상을 유지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반년 뒤인 2018년 12월에는 19%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지지율 추이도 앞에서 언급한 적어도 2017년 조기 총선거까지는 코빈의 정치적 행보가 실패로 간주되기는 어려우며 코비니즘 혹은 좌파 포퓰리즘 논쟁도 보수당이나 우파 언론의 공격이 지지율과 연계되지 않았다. 지지율의 하락의 주원인은 역시 노동당 당내분쟁과 노동당 내의 반유대주의 문제의 발발이다. 2018년 7월 코빈이 튀니지에서 열린 2014년 행사에서 1972년 이스라엘 올림픽 대표팀의 뮌헨 대학살의 배후의 테러리스트들을 기념하는 화환을 놓았던 사진이 발견되었고 이는 코빈이 반 유대주의자라는 여론을 확대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More than 85 per cent of British Jews think Jeremy Corbyn is antisemitic”) 이는 2019년 2월의 7명의 노동당 국회의원의 탈당으로 이어졌으며 (“Seven MPs leave Labour Party in protest at Jeremy Corbyn's leadership”) 이는 위의 <표-2>에서 보는 18%의 저조한 지지율로 이어진다. 코비니즘으로 불리는 좌파 포퓰리즘과 함께 반유대주의에 대한 비판이 코빈의 지지율 하락에 커다란 두 축이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국내의 중소기업과 산업을 위해서 유럽연합의 단일시장에 대해 비판적인 자세를 보이며 브렉시트를 찬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과 함께 (“Fear of Jeremy Corbyn-led government prompts tough EU line on Brexit”) 코빈의 행보에서 지속적으로 그의 대중적 인기가 낮음을 보수당이 공격하게 하는 빌미가 되었고 이러한 저조한 지지율은 그가 노동당 당수에서 물러날 때까지 회복되지 못하였다.

그러면 사진을 비롯한 증거가 있으며 의원들의 탈당까지 가져온 반유대주의라는 비판에 비해 좌파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은 과연 실체가 있는가? 본 논문에서는 이를 노동당의 2017년 선거공약집과 2019년 선거공약집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실제 선거에서 인정할 만한 지지를 받아 무폐에게 좌파 포퓰리즘의 성공사례로 거론된 시점과 역사적인 참패를 기록한 시점의 공약이 얼마나 변화하였는지를 고찰 해보려한다. 2017년의 공약은 사회민주주의적인 케인즈 주의에 가깝다는 평을 들었으나 2019년 공약은

매우 급진적이라는 평을 들었으며 선거 패배의 주요한 원인으로 거론되었기 때문에 (“General election 2019: Labour launches 'radical' manifesto”) 코비니즘의 좌파 포퓰리즘 성향을 보는데 가장 적합하다.

우선 2017년 노동당 공약집의 제목은 “소수가 아닌 더 많은 사람을 위하여 (For the Many, Not the Few)” 이었다. 이에 비하여 2019년 공약집의 제목은 “진정한 변화의 시기 (It’s Time for Real Change)”였다. 주요 공약을 비교해보면 2017년은 ① 대학생의 등록금 철폐, ② 잉글랜드 지역의 9개 수도회사의 재국유화, ③ 고소득자 과세 추가, ④ 소득세 증세 (연봉 8만 파운드 이상) ⑤ 아동복지 확대 ⑥ 무노동계약 철폐, ⑦ 소방관, 경찰관 추가 고용 ⑧ 고연봉 지급 기업 (연봉 33만 파운드 이상) 과세 등이다. 이에 비하여 2019년 공약집은 ① 의료복지 예산의 4.3% 증액, ②브렉시트 2차 국민투표 실시 ③ 최저임금 인상 (시급 8.21 파운드에서 10파운드로) ④연금 수령 연령 66세로 동결 ⑤ National care Service (전면 국가 복지 정책)의 도입 ⑥ 2030년대 이내 영국 탄소 배출을 0% 달성 ⑦ 주요산업 국유화 ⑧ 25세 이하 버스비 무료화 ⑨ 근로자 250명 이상 규모 기업의 주식 10%를 노동자 대표가 운영하는 기금에 증여할 것을 의무화 하는 등이다. 이중에 가장 논란을 일으킨 공약이 주요산업의 국유화이며 2017년의 잉글랜드 지역 9개 수도 회사에 불과하였던 국유화 추진 공약은 2019년에 전방위로 확대되었다. 노동당의 주장대로 국유화하여 민영화된 기업들보다 제대로 된 경영으로 경비절감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것은 부인할 수 없었고 적자에 허덕이는 부실경영을 대체하여 국유화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국유화가 되어있던 시절에도 이들 산업들이 적자경영의 전적이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높지 않았다.(김용민, 정성은 11) 이러한 야심차면서도 엄청난 재원이 필요한 공약들은 보수당 뿐 아니라 사회전반에 걸쳐서 급진적이며 재원 마련이 불가능하다는 비판을 초래했다. 코빈이 이는 희망을 주는 공약집이며 진정한 변화를 가져다주는 공약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철도, 수도, 우편, 에너지 (전기) 등을 동시에 재국유화 하겠다는 주장은 영국 국민들에게 너무나도 과격하게 받아들여졌다. 보수당이 이를 “더 많은 세금과 두 번의 추가 국민투표로 인한 혼란과 공포스러운 정도의 규모

의 국가부채”라고 비판하였고 중도인 자유민주당도 “비싼 댓가를 치를 국유화 계획으로 정부가 몇 년에 걸쳐 마비될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General election 2019: Labour launches 'radical' manifesto”) 결론적으로 2017년 공약집보다 2019년 노동당 공약집은 훨씬 더 광범위하고 급진적으로 변한 점은 사실이며 이러한 측면이 바로 코비니즘이라고 불리는 담론의 중요 내용일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노동당을 블레어 이전의 복고적인 극단적 정당으로 되돌렸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을 블레어 이전의 노동당으로의 회귀, 복고주의라고 규정지을 수도 있다. 이에 남은 연구과제는 또 한 가지 쟁점인 코비니즘이 과연 좌파 포퓰리즘인가에 대한 문제로 이는 이어지는 4장에서 유럽의 주요 포퓰리즘 정당 사례와 미국에서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비판을 받는 샌더스의 경우까지 포함하여 비교하여 분석하여 고찰해본다.

4. 유권자 획득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포퓰리즘 -좌파 포퓰리즘과 우파 포퓰리즘

짧게는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예상외의 결과로 유럽연합 탈퇴로 결정된 시점부터 길게는 유럽에 있어서의 그리스 경제위기 시점부터 유럽에 있어서의 거대 담론 수준의 포퓰리즘 논쟁은 시작되었고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의 모순이 지적되면서 포퓰리즘 정당으로 불리는 정당들이 선거에서 승리를 거두며 제도권 의회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극단적인 주장으로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나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마저도 포퓰리즘 정치인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코비니즘에 대한 주요 비판으로 등장한 좌파 포퓰리즘 논쟁에 대해 유럽의 주요 국가들의 포퓰리즘 논쟁을 비교 분석해보고 유권자 획득과 정치적 세력 확장을 위한 포퓰리즘으로서 우파 포퓰리즘과 좌파 포퓰리즘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려한다.

이제까지의 유럽의 포퓰리즘 정당이라고 하면 좌파와 우파를 막론하고 주로 문제

로 제기하는 것은 경제위기나 이민정책에 관한 것이었다. 영국의 영국독립당(UKIP), 스페인의 포데모스(Podemos), 프랑스의 국민전선(National Front), 이탈리아의 오성운동 (Five Star Movement), 그리스의 시리자(SYRIZA) 등이 모두 정파와 해결방법에서의 접근방식이 다르지만 경제위기나 이민정책을 무기로 정치무대에 등장하거나 세력을 확대하였다. 사실 유럽연합 지역에 있어서 이러한 급진적이거나 포퓰리즘적 정당의 대두는 새로운 사실은 아니다. 1990년대 마스트리트 조약이 체결되고 유럽이 경제적으로 단일시장을 형성한 이래 포퓰리즘이 등장한 계기는 역시 리먼쇼크로 불리는 세계적 금융위기 이후였다. 민주주의 역사속에서 포퓰리즘의 요소를 지닌 정치세력은 끊임없이 등장하였지만 특히 금융위기 이래 2010년대 이후는 포퓰리즘 논의가 대세로 등장한 시기이다. 물론 그 원인에는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와 글로벌리즘의 실패를 드는 사람들이 많지만 기존의 포퓰리즘이 선행연구들에서 언급한 것들과 같이 우파와 연결되어 배제와 차별을 정책으로 들고 나온 정당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인종, 이민, 경제위기로 인한 외국인 배척, 페미니즘 대두로 인한 남녀간의 젠더 대결 등을 활용하여 대중적 인기를 획득하고 대의민주주의의 장에 진출하였다. 이어서 기존 기성 정당들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판명되면서 세력을 확대하였다. 포퓰리즘이라는 용어가 국내에서 부정적인 의미만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극우적인 개념의 네오나치나 파시스트 정당이라기보다는 민주주의 제도 아래에서 경쟁하는 정당으로 변모하고 있고 이념적으로는 좌파보다는 우파와 더 밀접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이 카리스마적 정치인과 결합하게 되면 기성정당을 위협하는 규모로 까지 발전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위에서 예로 들은 유럽의 포퓰리즘 정당에는 어떠한 특징과 차이가 있는가? 위기상황에 있어서 국가주권이 침해되는 경우 기존의 정당들은 유럽연합과의 연대와 협상을 통한 해결을 목표로 하는 반면 우파 포퓰리즘 정당인 영국의 영국독립당(UKIP), 프랑스의 국민전선(National Front) 등은 이러한 문제를 반체제적이거나 이민자에 대한 혐오로 연결한다. 영국의 경우는 이러한 흐름이 브렉시트 운동에 있어서의 유럽연합 탈퇴에까지 확대되며 유럽연합이 이러한 위험을 가져오는 원인으로 치환된

다. 이념적 정향성이 없음을 공공연히 선언한 이탈리아의 오성운동 (Five Star Movement)은 이를 명백히 경제위기와 분배의 불평등함으로 표출해내고 있으며 스페인의 포데모스(Podemos)와 그리스의 시리자(SYRIZA)는 좌파적 성향답게 국내정치에 있어서의 기존 우파 기성정당들의 무능함을 드러내고 대의민주주의를 비판하는 담론으로 나타난다.(Borriello and Black 841) 이는 유럽에서 포퓰리즘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기존의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이며 의회민주주의가 기능하지 못한다는 정치불신에서 오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한 거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이 각 나라의 처한 환경에 따라서 경제적인 문제로도 정치적인 문제로도 표출되며 이러한 불만을 대중적으로 연결하여 표를 획득한다는 점에서는 우파와 좌파의 구별 없이 모든 포퓰리즘 정당이 이러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그러면 미국의 경우에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받는 트럼프와 샌더스는 어떠한가? 트럼프는 미국제일주의(America First)와 보호무역, 그리고 이제까지 모든 이민을 받아들였던 미국과는 다른 배타주의를 보이면서 극우 민족주의적 포퓰리즘으로 규정되는 경우가 많다. 트럼프와 정치적으로 자주 대립하고 있는 워싱턴포스트(*The Washington Post*)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트럼프의 집권 이후 특정 인종 및 민족에 대한 편견을 기초로 한 혐오범죄가 현저히 증가했으며(“Hate crimes rose the day after Trump was elected, FBI data show”) 극단적인 인종차별 범죄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어서 기존의 언론사들 중 자신과 성향이 맞지 않는 언론들을 가짜뉴스라고 공격하며 중요한 정책결정들을 트위터로 발표하고 조정하는 트럼프의 스타일은 기존의 정치와는 다른 포퓰리즘과 탈정치화 교묘하게 결합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코로나 19사태 이후 중국에 대한 공격은 포퓰리즘적 배제와 혐오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기성 정당인 공화당의 대통령후보가 되고 대통령에 당선된 경우이기 때문에 기존의 정당과 시스템을 비판하는 포퓰리즘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트럼프와 대척점에 서있는 민주당의 샌더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트럼프와 공화당 보수층으로부터 포퓰리즘이라고 공격받지만 샌더스의 정책은 유럽의 기준으로 보면 독일의 집권당인 중도우파 기민당에서도 우파에 속할 정도의 정책이라고 평가받는다.(“Trump vs Sanders? Populism vs Populism”) 이는 포퓰리즘

이라는 같은 용어를 사용하지만 그 스펙트럼과 정책, 이미지 등은 각 나라들의 정치지형과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이라는 점을 보여주며 거대담론 차원에서의 규정이 아직 완료되어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는 코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가 노동당에서 추진한 공약들의 스펙트럼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기에는 위의 여러 포퓰리즘 정당들의 정책과의 비교에서도 무리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예로 들은 여러 정당과 정치인들의 공약들을 비교함으로써 좌파 포퓰리즘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정책은 시의성을 위하여 각 정당과 정치인들의 가장 최근 정책들을 기준으로 하며 분야별로 비교하며 그 분야는 공통적으로 조사가 가능하며 포퓰리즘적 성격을 살펴볼 수 있는 외교안보, 이민자 정책, 경제 정책, 복지 정책으로 한정한다.

먼저 영국독립당(UKIP)의 최신 2019년 선거 공약을 살펴보면 외교안보에 있어서는 유럽연합 탈퇴를 기준으로 영국의 GNI기준 0.7% 국제지원의 철폐를 주장하고 있으나 NATO에 대하여서는 강한 지지를 표명하고 강한 영국을 위한 국방예산의 증액을 천명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연합 주도의 어떠한 방위연합 시도에도 참가하지 않는다는 점도 같이 명기하고 있어 민족주의적 성격에 의해 각각 방향성이 다른 정책이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민정책에 대해서는 1년의 이민자수를 1만명 이하로 제한, 유학생 수 50만 명으로 제한, 이민조절청 신설, 아프리카와 중동지역으로부터의 이민자 수 제한, 시민권(영주권) 획득 조건 강화 등이다. 경제정책으로는 세율인하, 자국시장 보호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구체적이지는 않다. 마지막으로 복지정책으로는 의료 복지의 확충(NHS 확대), 무주택자 등의 사회복지 예산의 50억 파운드 증액, 연금 지급액수 증액 등을 명기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법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UKIP 2019)

이어서 프랑스 국민전선의 2017년 대선용 공약들을 살펴보면 외교안보정책에 있어서는 영국독립당과 같이 유럽연합으로부터의 탈퇴, NATO의 지시거부와 함께 국방예산 증액 등이 명시되어 있다. 이민자 정책으로는 서류가 없는 이민자의 프랑스 체류

거부, 불법체류자에 대한 의료혜택 중지, 프랑스 국적획득 조건 강화 (속지주의 국적 획득 불가), 이민자 수를 년 1만명 이하로 제한, 모든 이슬람관련 종교시설 폐쇄 등이다. 경제정책으로는 유럽연합, 이민, 관료조직 개편을 통한 재원확충으로 5년안에 성장률 연 2.5% 달성을 주 목표로 하여 2022년까지 국가부채를 GDP의 89% 수준까지 낮추는 것을 내세우고 있다. 복지정책으로는 소득세의 10% 감세, 법인세 인하, 은퇴 연령의 60세로의 단축 (종전 62세), 아동복지수당 무조건 지급, 모든 전기세, 가스비의 5%인하, 주 35시간 노동과 초과 노동분의 수입에 대한 면세 등이 있다. (“Factbox”) 이상의 두 정당은 포퓰리즘 정당 중에서 우파적인 정당으로 분류된다.

다음으로 이념적 정파성이 없음을 공공연히 천명하고 있는 오성운동의 공약을 살펴보면 정책이 다른 정당들처럼 분야로 나뉘어 있기보다는 모두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점이 특징적인데 가장 중요하게 2018년 선거에서 내세운 것은 기본소득의 도입이다. 그리고 그들의 표현에 따르면 ‘쓸데없는’ 400 개 법률의 폐지로 이러한 법안유지에 드는 비용을 경제에 투자하여 경제위기 극복을 내세우고 있다. 이를 통하여 500억 유로의 비용을 이탈리아 국민에게 돌려 줄 것이며 이민정책에 있어서는 이민자에 대한 전면거부보다는 모든 불법이민자에 대한 즉각적인 송환을 공약하고 있다. 또한 세율인하와 연금확대, 경찰 고용 증대로 인한 치안 안정의 확보, 전국 에너지 자원의 100% 재활용 친환경 에너지 활용을 통한 환경 보호, 전면적 교육개혁 등이 특징적이다. 그러나 공약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 앞의 두 우파 포퓰리즘 정당들과는 다르게 기본소득 도입과 법인세, 소득세 인하 등의 정파성이 다른 공약들이 혼재하며 100% 재활용 에너지 도입 등의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는 공약도 혼재하여 있어 정체성을 규명하기 어려움이 따른다. (“Election 2018”)

그러면 좌파정당으로 분류되는 포데모스와 시리자의 공약들을 살펴보면 포데모스는 ‘확고한 반 긴축정책’ 노선을 표명하고 있다. 주택 임대료 인하, 배기가스 청정 구역 설정, 무료 유치원 확대 등 복지지출 대폭 확대를 주장하고 있으며 가장 유명해진 것은 2016년 총선에 있어서의 기후 변화에 맞서 2050년까지 완전히 탈탄소화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 계획과 재생가능에너지 확충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 안에는

2024년까지 모든 핵발전소를 폐쇄한다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 위기가 닥칠수록 복지를 확대해야한다는 시각을 지닌 포데모스는 창당 시점의 기본소득 도입에서 보장소득제도로 방향을 전환하였는데 이는 현실성이 있어야한다는 비판에 대해 약간의 우경화 경향을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법이 정한 소득에 도달하지 못하는 빈곤층에게 기본적인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1인 가구 당 월 600유로 수준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코로나 19 위기 이후에는 임대 보호법에 대해서도 소리를 내고 있다. 특이한 공약으로는 스페인답게 카탈루냐 지역의 자결권 보장이 있으나 이는 포데모스의 득표율의 낮추고 내부분열을 가져왔다는 평을 받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정책을 실시하는데 있어서의 재원에 대해서는 대기업 세금 감면을 폐지하고 금융 거래에 과세하며 부유층 자산 과세를 강화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이야기하고 있다. (“PODEMOS.”)

시리자는 좌파 포퓰리즘 정당 중에 가장 성공한 사례이다. 2015년 제1당이 되었고 정권을 쟁취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반자유주의와 직접민주주의 도입을 주장하며 집권한 시리자는 유럽연합, 유럽중앙은행, 국제통화기금의 삼각압박에 굴복하여 신자유주의의 이념이 들어있는 제3차 긴축각서에 서명하였고 이는 자신들이 비난하던 유럽의 수많은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정책으로 선화한 것을 의미한다. (박상준 2017 초록) 포데모스도 시리자도 포퓰리즘 정당으로서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려는 급진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정권획득을 위해서는 결국 의회민주주의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으려면 대중친화적인 노선으로 변화할 수 밖에 없으며 특히 시리자와 같이 정권을 담당하게 되면 신자유주의적인 자본주의 세계질서에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어 결국 그들이 비판하던 의회민주주의 정당과 유사한 노선을 선택하는 길로 진행하게 된다.

그러면 미국에서 포퓰리즘 대결이라는 평을 받고 있는 트럼프와 샌더스의 정책은 어떠한가? 트럼프는 2016년 대선에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표어로 대표되는 정책으로 당선되었고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보호무역을 통한 경제발전, 미국 노동시장 보호, 이민자보다 미국인 우선 등을 정책으로 제시하였다. 2020년 현재 재선을 준비하는 트럼프의 정책은 2016년의 정책을 기본

적으로 계승하면서 이미 트럼프의 4년 동안 미국은 위대해졌으며 이를 유지해나갈 것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2020년 2월 5일 의회연설에서의 그의 주장대로라면 미국의 경제상황은 사상최고이며 실업률은 반세기만에 최저수준이고 51년만에 처방전이 필요한 약의 가격이 내려갔으며 불법 이주는 8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State of the Union 2020”) 실재는 사실과 다른 통계도 있지만 이렇게 경제호황과 불법이민 제재를 업적으로 내세우던 트럼프는 현재 코로나 19로 인하여 전혀 다른 측면을 맞이하고 있으며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중국과 트럼프의 논리대로라면 중국의 꼭두각시인 WHO에게 전가함으로써 위기를 탈출하려 하는 중이다. (“Coronavirus”)

트럼프와 대적점에 서있는 버니 샌더스의 정책을 살펴보면 자신을 민주적 사회주의자라고 이야기하는 샌더스는 북유럽의 사민주의를 미국에 적용하는 것을 신조로 하며 소득 불평등을 개선해야하는 것을 경제정책의 최우선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에 더하여 기후변화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함을 주장하며 2020년 선거전에서 그린 뉴딜을 약속하였다. (“Bernie Sanders Enters 2020”) 또 군비축소와 국제협력, 사형반대, LGBT 평등, 흑인 인권 신장 등이다. (“Bernie Sanders”) 이러한 공약을 보면 버니 샌더스의 정치적인 위치는 미국이라는 정치지형이 아니면 결코 좌파 포퓰리즘으로 분류될 수 없으며 유럽의 기준으로는 온건한 사민주의에 가깝다.

이상으로 유럽과 미국에서 포퓰리즘이라고 규정되거나 불리는 정당, 정치인들의 정책을 정리하여 비교하여 보면 우파 포퓰리즘은 배제의 논리이거나 비난할 적을 만드는 전술로 책임을 전가하여 자신의 지지층들에게 당신들의 책임이나 잘못이 아니라 ‘저들’의 탓이다 라는 선동적 행동을 통해 지지층을 확보한다. 이에 비하여 좌파 포퓰리즘은 현재 전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와 글로벌리즘의 모순을 지적하고 대의민주주의를 수행하고 있는 기성의 정치세력의 무능함을 공격하며 지지층을 확보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특이할 만한 현상으로는 좌파 포퓰리즘 정당들도 권력을 획득하거나 의회민주주의 안으로 편입이 되면 결국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구조나 글로벌리즘의 압력에 굴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굴하지 않으면 결국 지지율이 내려

가서 사라지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이제 21세기에 단순히 포퓰리즘은 악이며 옳지않 다라는 단정적인 사고보다는 좌와 우라는 정파적 차이를 막론하고 포퓰리즘이 하나의 선거에서의 유권자들의 지지획득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논문의 연구목적과 문제의식은 2019년 영국 조기 총선거에서 역사적인 대패를 기록한 노동당이 2017년 선거 결과로는 좌파 포퓰리즘의 성공사례로 간주되었던 성공에서 어떻게 단시간에 전혀 다른 유권자들의 평가를 받았으며 그 실패의 원인이 보수당이나 우파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코빈에 의해 주도된 좌파 포퓰리즘인 코비니즘이 노동당을 실패의 길로 인도하였는가를 규명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하기에는 2019년의 주요 산업 국유화를 공약을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하여도 남유럽의 좌파 포퓰리즘 정당 (포데모스, 시리자)의 공약처럼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거나 기성정당인 노동당의 제도를 혁명적으로 개혁하는 과격성을 보여주고 있지 않으며 나머지 공약에 있어서는 유럽의 사민주의 정당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좌파 포퓰리즘이 아닌 블레어의 제3의 길이 아닌 고전적 노동당의 위치로의 복고주의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복고주의 실험은 철저히 실패하였고 이제 새로운 노동당 지도부는 다시 블레어와 브라운이 보여줬던 합리적인 중도좌파 노선인 제3의 길 노동당의 정책을 답습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미국적 지형에서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을 받는 샌더스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샌더스의 정책은 유럽 기준으로는 중도우파에 가까우며 북유럽형 사민주의를 이상으로 하지만 그 정책의 강도는 훨씬 더 완만하다.

이에 더하여 유럽 각국의 우파 포퓰리즘 정당과 좌파 포퓰리즘 정당에 대해서도 정책을 비교하여 보았으나 극우정당으로 불리는 집단이 배제와 혐오로 지지층을 확대하

는 것에 비하여 좌파 포퓰리즘 정당들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세계질서가 만들어 내는 불평등과 대의민주주의의 기성정당들의 무능함을 대체하기 위해 직접민주주의와 경제시스템의 개혁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의회에 진출하면 자본주의 세계시장의 압력과 현실적 득표 전략을 위하여 점차 수정적인 노선을 걷는 것을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현재 한국과 영국, 미국을 중심으로 한 포퓰리즘 비판은 실제 포퓰리즘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수준의 중도 사민주의 정책들이 많으며 그마저도 현실의 벽과 마주할 때 상당부분 제도 안으로 편입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결론적으로 코비니즘도 샌더스도 유럽의 좌파 포퓰리즘 정당들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는 것은 대척점에 서있는 보수정당, 언론에 의한 것으로 실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욱 고민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브렉시트와 트럼프 그리고 최근의 코로나 19로 이어지는 일련의 세계 정치상황의 변화에서 포퓰리즘은 이제 나쁜 것이 아닌 좌우를 막론하고 하나의 유권자 획득 수단으로 변모한 것인지도 모른다. 앞으로 이러한 좌파 포퓰리즘에 대한 정확한 거대담론적 규정이 후속연구로 필요한데 정작 좌파 포퓰리즘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확산시킨 무페의 저술에도 거대담론의 연구라기보다는 유권자 획득 수단 즉 정권획득 수단으로 단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제 좌파 포퓰리즘을 포함 포퓰리즘에 대한 정파를 초월한 전체적인 담론적 규정부터 필요한 시기에 도달하였다고 할 수 있다.

Notes

- 1) 모든 표는 저자가 작성

Works Cited

○ 국내문헌

- 금민. 「포데모스, 좌파 포퓰리즘의 가능성과 한계」. 『마르크스주의 연구』, 12권 4호, 2015, pp. 268-313.
- 김상수. 「국내정치 전략으로서의 ‘유럽연합 국민투표 법안(2015-2016)’ : 영국 보수당의 유럽회의주의를 중심으로」. 『EU연구』, 41호, 2015, pp. 71-102.
- 김시홍. 「2018 이탈리아 총선과 포퓰리즘 정부」. 『유럽연구』, 36권 3호, 2018, pp. 53-73.
- 김용민. 「신 노동당 제3의 길은 실패하였는가?: 노동당 집권기 (1997-2010)부터 제레미 코빈(Jeremy Corbyn)까지」. 『유럽연구』, 2016, pp. 137-58.
- 김용민, 박영득. 「2017년 영국 조기 총선거 집합자료 분석: 유럽연합탈퇴를 앞둔 불확실성의 증대」. 『EU연구』, 2017, pp. 139-68.
- 김용민, 정성운. 「2019년 영국 조기 총선거 분석: 브렉시트 피로감과 코비니즘(Corbynism)의 실패」. 『EU연구』, 2020, pp. 3-34.
- 김용민, 홍재우. 「유럽회의주의의 심화와 내부 민족주의의 발호—2015년 영국 총선거 결과를 중심으로—」. 『영국연구』, 2015, pp. 197-233.
- 박상준. 「시리자(SYRIZA)의 부상과 그 한계: 대의민주주의 비판을 중심으로」. 『EU연구』, 47호, 2017, pp. 169-204.
- 배병인. 「유럽 민주주의의 퇴조와 극우 포퓰리즘 정당의 약진: 1990년대 중반 이후 유럽연합 회원국 의회 선거 결과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26권 4호, 2017, pp. 67-87.
- 배병인. 「기성 정당의 카르텔화와 포퓰리즘 정당의 성장: 유럽의 사례」. 『21세기정치학회보』, 29집 4호, 2019, pp. 73-90.
- 오창룡. 「2019년 유럽의회선거의 함의: 극우 포퓰리즘과 중도자유주의의 부상」. 『의정연구』, 25권 2호, 2019, pp. 5-34.

- 임유진. 「남부 유럽의 테크노 포퓰리스트 정당과 당내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포데모스와 오성운동의 정당 조직과 정치적 결정과정」. 『담론201』, 23권 1호, 2020, pp. 193-221.
- 정태석. 「포퓰리즘은 민주주의가 될 수 있을까?, 상탈 무폐, 『좌파 포퓰리즘을 위하여』, 이승원 옮김, 문학세계사, 2019」, 『시민과 세계』, 34호, 2019, pp. 351-62.
- 진태원. 「한반도 평화체제의 (탈)구축을 위하여 : 을의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코키토』, 88호, 2019, pp. 7-50.
- 홍지영. 「반기성정치적 관점에서 본 유럽회의주의 : 포퓰리즘으로 인한 유럽통합 위기」. 『국제정치논총』, 59집 2호, 2019, pp. 91-124.
- “Bernie Sanders to Explain His Take on Democratic Socialism.” *AP* 12 June 2019.
- Bolton, Matt, and Frederick Harry Pitts. “Corbynism and Blue Labour: Post-liberalism and National Populism in the British Labour Party.” *British Politics*, 2018, pp. 1-22.
- Borriello, Arthur, and Nathalie Brack. “‘I want my sovereignty back!’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populist discourses of Podemos, the 5 Star Movement, the FN and UKIP during the economic and migration crises.” *Journal of European Integration*, vol. 41, no. 7, 2019, pp. 833-53.
- Byrne, Liam. “How Jeremy Corbyn brought Labour back to the Future: Visions of the Future and Concrete Utopia in Labour’s 2017 Electoral Campaign.” *British Politics*, vol. 14, no. 3, 2019, pp. 250-68.
- “Coronavirus: Trump Accuses WHO of being a ‘puppet of China’.” *BBC* 19 May 2020.
- Daniel, Sugarman. “More than 85 per cent of British Jews Think Jeremy Corbyn is Antisemitic.” *The JC*, 13 Sep 2018.
- Dorsey, James. “Trump vs Sanders? Populism vs Populism.” *Moderndiplomacy*, 1

Mar 2020.

Dyer-Witthford, Nick. "Left Populism and Platform Capitalism." tripleC: Communication, Capitalism & Critique, *Journal for a Global Sustainable Information Society* vol. 18, no. 1, 2020, pp. 116-31.

Eaton, George. "Labour's manifesto is more Keynesian than Marxist." *New Statesman*, 16 May 2017.

"Election 2018: M5S Manifesto." *ANSA.it* 15 Feb 2018.

"Factbox: France's Le Pen sets out presidential election manifesto." *REUTERS* 4 Feb 2017.

"General Election 2019: Labour Launches 'Radical' Manifesto." *BBC* 22 Nov 2019.

"Hate Crimes Rose the Day after Trump was Elected, FBI Data Show." *Washington Post* 23 Mar 2018.

Holder, Josh, Caelainn Barr, and Niko Kommenda. "Young voters, class and turnout: how Britain voted in 2017." *The Guardian*, 19 June 2017.

"Leadership Approval Opinion Polling for the 2019 United Kingdom General Election." *Wikipedia* 2019.

Maiguashca, Bice, and Jonathan Dean. "'Lovely people but utterly deluded?.'" *British Politics*, vol. 15, no. 1, 2020, pp. 48-68.

Manifesto. Conservatives Party 2017.

Manifesto. Labour Party 2017.

Manifesto. Labour Party 2019.

Manifesto for Brexit and Beyond. UKIP 2019.

Manwaring, Rob, and Evan Smith. "Corbyn, British Labour and Policy Change." *British Politics*, vol. 15, no. 1, 2020, pp. 25-47.

Mouffe, Chantal. *For a Left Populism*. Verso Books, 2018.

Pitts, Frederick Harry, Matt Bolton, and Martin Thomas. "Interview: Corbynism,

Marxism, and ‘Orthodox Marxism’.” 2018.

POMEDOS. Official Homepage.

Rosane, Olivia. “Bernie Sanders Enters 2020 Race, Promises Own Version of Green New Deal.” *Eco Watch*, 19 Feb 2019.

“Seven MPs leave Labour Party in protest at Jeremy Corbyn’s Leadership.” *BBC* 18 Feb 2019.

Seyd, Patrick. “Corbyn’s Labour Party: Managing the Membership Surge.” *British Politics*, 2020, pp. 1-24.

“State of the Union 2020: Donald Trump claims fact-checked.” *BBC* 5 Feb 2020.

Waterfield, Bruno, and Lucy Fisher. “Fear of Jeremy Corbyn-led government prompts tough EU line on Brexit.” *The Times*, 07 May 2018.

Watts, Jake, and Tim Bale. “Populism as an intra-party phenomenon: The British Labour Party under Jeremy Corbyn.” *The British Journal of Politic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vol. 21, no. 1, 2019, pp.: 99-115.

Abstract

Failure of the British Labour Party's Revivalism Experiment: An Argument against Corbynism and Left Populism

Kim, Yongmin
Konkuk University

The British Labour Party suffered a historic, crushing defeat in Britain's early general election on December 12, 2019, which has been said to be caused by Corbynism based on extreme leftist populist policies. In this paper, I examine these policy aims and whether they can be defined as left-wing populism. Then, I consider populism as a means of obtaining actual votes by comparing and analysing the policies of various populist parties and politicians classified as left populism and right populism. The current concept of populism is different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and populism has a different meaning in Europe, Britain and America where it is as a method of obtaining real political support. It is not populism that the media has branded and created by comparing various populist parties and politician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also to examine whether the failure of Corbynism is due to extreme left populism or if other reasons have caused it. Finally, I predict the future direction of the British Labour Party and its future political development. This paper will serve as the basis of research for left populist discussions that have yet to be considered in Korean academia.

Key words: British Labour Party, Jeremy Corbyn, Corbynism, left populism, revivalism

논문접수일: 2020.05.22

심사완료일: 2020.06.17

게재확정일: 2020.06.25

이름: 김용민

소속: 건국대학교 중국연구원 조교수

주소: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120 건국대학교 경영관 549호

이메일: kym7224@naver.com